

제33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 충남과 차이나(China)는 관광전략 -

- 지난 8월 29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아주경제신문 홍석민 기자가 “충남과 차이나는 관광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충남연구원 원내 연구원들과 도 및 각 시군 중국교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그림1> 홍석민 기자의 발표 사진과 종합토론 사진

- 이번 포럼에서는 충남의 관광자원과 중국 관광객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충남의 자원에 알맞은 중국 관광객 타깃층 선정과 효율적인 전략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 우선, 충남도는 유명관광명소,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 중국 관광객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00만 명(교포 및 승무원 제외)이었으며, 이는 사드배치 여파로 전년대비 약 48%가 감소된 수치라고 하였다. 관광객의 연령별 분포에서 20대가 31%, 30대가 17%, 노년층이 24%를 차지하며, 중국 관광객의 78.8%가 서울을 주로 찾으며 이외에도 부산, 제주, 전주, 남이섬 등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관광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왕홍,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얻고 있으며 한국 관광에서 맛집, 쇼핑, 숙박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 홍보전략적 차원에서 팸투어, 서포터즈, 기자단 세개 채널에 대해 비교하였고 그 중 중국에서 뜨고 있는 왕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왕홍은 인터넷스타를 칭하는 신조어로써, 이들은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먹거리,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 중인데, 뷰티브랜드 “에스티로더” 회장은 중국시장에서는 “TV광고보다 효과가 크다”고 한 바 있다고 하였다.
 -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충남의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첫 번째는,

대산항과 통영항의 정기노선 취항에 대비하여 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광객들의 쇼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쇼핑몰 마련이고 세 번째는, 도내 관광지 사이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개별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을 위해 여행객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는 앱 개발 등 모바일 관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충남의 여행자원을 활용한 사찰체험, 병역체험, 해안체험 등 지역에 특화된 여행상품 개발도 적극 추천하였다.

-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도 및 시군 중국교류 담당자들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 논산시 국제교류팀 김관기 팀장은 논산 썬사인랜드에서 촬영 중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중국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였다. 마침 사드 보복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고 하였다.
 - 보령시 대외협력팀 최철구 팀장은 보령 머드바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 받았는데 오늘 발표내용을 토대로 왕홍 등 신흥홍보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겠다고 하였다.
 -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보령은 관광의 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전횡장군, 유격장군 청덕비 등을 활용하여 관광매력을 더 할 것을 제안하였고, 논산시에는 썬사인랜드와 더불어 강경 화교학교의 역사를 활용하여 관광과 역사를 잇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끝으로 홍석민 기자는 관광자원 규모에서는 절대적으로 중국에 뒤지지만 아기자기한 여행상품을 마련하여 틈새시장을 노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중국 관광객들도 농촌투어, 그린투어 등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지명은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